

# 전라북도의 환경·물 정책을 말한다!

“전북도민의 건강한 미래,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여느 때 보다 더 맑고 따사로운 봄이 찾아온 날, 맛과 멋, 그리고 소리의 고장인 전북도청을 방문하였다. 맑은 물 보급과 건강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최수 환경보건국장을 만나 전라북도의 환경·물 정책, 그리고 전라북도의 수질관리와 이용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건국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최수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

 먼저 저희 협회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잘 어우러져 아름답고 인정이 많은 고장인 전라북도는 환경에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전라북도의 환경 및 수질분야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금년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과 기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조성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방의 제 실천기구인 '푸른약속 전북 21'을 주민실천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기반 구축을 위해 전주자연생태체험관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4개소 확충하고 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며 청소년들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에 3천만원 지원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생태보전협력금 부과·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536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광역상수도사업에 관로 64km와 배수지 2개소 등 204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65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인 해수 담수화사업에 10억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15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셋째,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증가된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은 1990년~2011년까지 1조 1,513억원의 사업비로, 68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2004년 말 현재 19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총 36개소로 계속추진 19개소와 새만금 민자지구 17개소를 신규로 추진합니다. 또한 농·어촌 자연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사업은, 금년에 58개 사업을 추진하며 그 내용은 계속사업 40개소와 신규사업 18개소입니다.

넷째,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부중합대책의 착실한 이행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완벽한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20개소와 하수고도처리 5개소, 하수관거 180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 상류유역에서 6개 시·군이 참여하여 총 29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및 운영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할 계획으로 2008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환경대책은 매월 정기적인 수질 측정 및



▲ 도 환경기술지원단 발대식

평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강 살리기 운동 등으로 새만금 상류유역의 수질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74억원을 투입하여 총 22.8km의 7개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용담댐 상수원의 수질안정화에 따라 전라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진안군 및 지역 주민협의회 간에 수질개선 활동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18개소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계획은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의 오염물질을 총량관리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방침에 의거 우리 도의 기본계획(안)을 2004년 10월에 환경부에 승인신청하였으며 상반기 중 환경부 승인이 있는 후, 시·군에 시달하여 시·군에서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행정을 위하여 「고객감동」 환경민원 A/S를 혁신과제로 삼아 환경민원을 중간서비스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능동적이며 도민과 기업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도 환경민원처리에 혁신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전북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기업가에게는 사업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인식케 하여 전북경제가 발전하고 도민의 생활이 풍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북도민의 생명수, 용담댐 전경

 2002년도에 환경부가 확정한 용담댐 수질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 중 수질오염방지대책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자체 용담댐 수질보전대책 추진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부가 확정한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해당 되는 지자체는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총사업비 1,76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총 9개소로 처리용량 9,420톤에 대하여 3개소가 운영 중이며 6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74개소로 처리용량 3,298톤에 대하여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5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설치사업은 총 148개소로 총 연장길이 139km에 대하여 98개소가 완료되고 5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총 3개소로 처리용량 270톤에 2개소가 운영 중이며 1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총 3개 하천으로 연장길이 6.0km에 대하여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용담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방안에 대하여는 환경부, 전라북도, 해당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실시한 결과, 용담댐 상류 하수처리장 통합자동감시 제어 구축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데 합의하

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통합 운영관리 위·수탁 기본 협약은 수공과 전북도,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간에 체결하여 2004년 7월부터 시스템 구축공사를 시행, 댐 상류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시설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중심 하수처리장을 선정하여 인근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운영토록 하는 '중앙 집중식 감시 및 제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용담댐 수자원 관리단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 통합 운영관리 위·수탁 실시협약을 10년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감시 및 운전을 통한 인력의 최소화로 운영경비 연간 5억원, 시설설치공사비 연간 20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등 댐상류 환경기초시설의 중앙집중식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용담호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담댐 수질보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합동으로 낚시오염행위 합동단속과 수변구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인근 음식점, 숙박시설 등 신규입지제한 및 기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용담댐 조류 예보제를 시행하여 녹조방지대책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지원, 인공습지 조성,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정기적인 하천 정화활동과 비점오염원 관리 등 용담댐 수질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함으로써 전주시, 서천군 등 5개 시·군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용담댐 수질보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새만금사업이 우리사회의 핫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및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향후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민의 꿈이 된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1960년 이후 다른 지방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젊은이들은 한번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고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만의 큰 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2/3이고 군산시보다 큰 땅이 생기는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이라 하니 꿈을 꿀만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이 현재 자꾸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의 환경단체들이 반대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새만금사업을 완성하면 만경강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경강물은 더러워서 농사용으로 쓸 수 없으니 새만금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만경강물이 더러워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당장 금년 여름부터 저 넓디넓은 호남평야는 무슨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또 금강물도 영산강물도 한강물도 낙동강물도 결코 만경강물보다 깨끗하지 못한데, 대한민국 농민들은 도대체 어떤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은 당장 내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반대하는 다른 이유들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하도 집요하게 주장하니깐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를 2년간이나 중단하면서까지 새만금사업을 원점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즉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공사를 중단

하고 정부와 환경단체 각각 10명씩의 전문가를 지명하여 민관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1년간 현지조사 등을 하면서 환경문제, 경제성문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1년여에 걸쳐 각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되지 못함으로써 정부는 몇 가지를 보완하여 새만금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의 순차개발방안입니다. 그들이 정말 환경을 위하고 새만금사업을 위한다면, 그들도 이제는 일방적인 주장을 접고 힘을 합하여 새만금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조사하고 토론하는 와중에 또 다른 민원을 내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요즘의 재판이 그것입니다. 도대체 국책사업의 추진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환경단체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쪽이 서로 타협하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법규에도 없는 조정권고안을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권고안은 양쪽의 주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환경단체의 주장만 100% 반영됨으로써 정부는 당연히 조정권고안을 거부하였고 재판부는 지난 2월 4일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재판을 주도한 부장판사는 그가 판결한 지난 2003년 7월 새만금 공사 중지명령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2003년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에는 어느 문외한이 보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 최수 국장이 새만금 간척지역을 가리키며 "2만 8천 3백ha의 새로운 땅과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크게 여덟 가지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분류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번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3항을 들어 취소 또는 변경했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다섯 가지 문제점은 첫째, 간척지의 사용용도 등 사업목적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둘째, 담수호에 대한 수질관리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셋째,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넷째, 갯벌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평가에 사정변경이 있는 점, 다섯째, 해양환경 등의 변화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입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든 취소 등의 사유와 재판부가 든 법률을 비교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도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은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자연적 현상에 의한 경우를 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사람에게 의하여 통제 가능한(Controllable)상황을 들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토지목적에 변경한 후 변경하였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은 기왕 일어난 상황을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되는 상황을 가지고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다.

셋째, 법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누구나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상황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화에 따라 토지용도를 바꾸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법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록 취소사유 등이 발생하였어도 무엇이 공익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32조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소 등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속행위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재판부는 환경단체 편을 들기 위하여 누구나 틀림이 없이 명백한 억지판결을 하였다고 우리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를 도와 이번 재판에서 꼭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도는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일일이 도출하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협회지 독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하여 주시면 우리 도는 기꺼이 참조하여 이번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활용할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상하수도인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수질보전을 포함한 환경정책은 도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전라북도의 환경·물 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도민과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가 용담댐 완공이후 물 걱정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물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 도민 1인당 사용량은 전국 35ℓ 보다 24ℓ 가 많은 38ℓ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무절제한 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오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도민의 최대 소망인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비록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지만,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가 완공되고 도민의 희망과 환경단체들의 친환경 개발의지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이 지역은 최첨단 농업·관광·항만·물류단지로 조성되어 신행정 특별도시의 관문으로 환 황해권 전진기지로 발전되어 세계속의 새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경강 가꾸기 운동에도 자진 동참하시어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왜곡되어 있는 시각을 돌려 놓을 수 있도록 도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새만금지구가 앞으로 친환경적인 희망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라북도의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최수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먼저 21세기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도민들의 물사용 습관 정착 및 쓰고 난 물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공급위주 수도정책을 수요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상수도시설 관리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 도내 상수도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도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은 물론, 하수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생활불편 해소와 보건위생이 향상되어 마침내 도민의 욕구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수도 분야는 정수장 수질검사, 절수기기 설치, 노후 수도관 교체,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지하수 관리,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물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을 3.7%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4천7백5십만톤의 물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상수도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영화하기 시작함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견실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 수도행정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는 도내 새만금유역 6개 시·군 29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통합운영·관리하기 위해 도와 시·군 및 시공업체 간에 협약과 사업승인을 완료함으로써 관리인원 감축 등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관리까지 전문적인 민간기업으로 일원화하여 방류수의 수질보증 등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새만금유역내 하수처리장을 체계적으로 건설·관리함으로써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간자본을 30%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철주야 도민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적절한 하수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 직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금년에도 보다 나은 환경행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상수도 분야의 유일한 정보지인 협회지(계간\*상수도)와 인터뷰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라북도의 환경 업무와 도의 현안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 전라북도의 발전은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에서 시작된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최수 국장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전국규모의 대규모 행사인 'WATER KOREA' 행사를 개최하여 전국 상수도인의 단합을 도모하고 아울러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로 자리잡아가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상수도협회 및 협회지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